

후속세대양성프로그램(2018.06.04)

중국 현대사 속의 지적 흐름과 논쟁

최은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을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중국사회-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전환의 문제에 직면
- 근래 사상논쟁을 통해 이러한 중국내의 문제를 검토하고 중국의 변화를 전망해 봄
- 왜 중국내 사상 흐름에 주목해야 하나?
시진핑(習近平) 체제- 2013년 출범 최소 2023년 이상까지 지속
2013년 8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공작회의 시진핑 총서기 연설>
“ 이데올로기 사업은 당의 극도로 중요한 사업이다(意識形態工作是黨的一項極端重要工作 ”를 주장과 그 의미
 - ①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의 부쟁론‘不爭論’원칙의 변화
 - ②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협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인식변화

부쟁론 원칙에서 변화?

- 개혁개방을 할 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 실험해 보고 그 결과가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판단하는 것 더 강조
- 천안문 사태 이후(1989)이후 사회성격에 대한 논쟁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더 강함
- 1992년 1월부터 2월까지 덩샤오핑은 남순강화(南巡講話)

“부쟁론은 내가 발명한 것으로 논쟁의 상황이 벌어지면 시간이 낭비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니 대담하게 시도하고 돌파하라”---지금까지 이데올로기 문제는 이러한 원칙하에 다루어져 왔음-**이데올로기 문제의 중요성 강조로 바뀜**

이데올로기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중국공산당은 이데올로기 정당이므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어떤 위협이 더 큰가를 논의. 좌냐 우냐
- 덩샤오핑은 좌경적 경향에 대해서도 경계함
- 예)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의 좌경 경향의 폐해
- 하지만 좌는 방법에서 비판, 우는 입장에서 비판이므로 실상 우경적 오류의 문제가 기존에는 더 엄중했으나 이에 대한 덩샤오핑의 주장은 매우 큰 변화였었던 것
- **시진핑 체제- 우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진 점에 주목해야**

시진핑 체제의 '우(右)'에 대한 비판

- 2013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 문건 <현재 이데올로기 영역 상황에 대한 통보>
공산당이 위협으로 느끼는 현재 이데올로기 7가지(6개 우 비판, 1개 좌 비판)
- ① 헌정민주론(憲政民主論)-서구식 헌정, 삼권분립, 경쟁적 다당제 등 서구식 정치 질서
- ②보편가치론(普世價值論)- 인권, 자유 등 중국내 자유주의 경향 주장
- ③시민사회론(市民社會論)- 당통치의 기초 이데올로기 흔든다
- ④서방언론관(西方言論觀)- 언론의 독립
- ⑤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신자유주의주장 경제는 사회주의를 위협
- ⑥역사허무주의(歷史虛無主義)-중국공산당의 과거 역사 비판,통치정당성 부정 경향
- ⑦개혁개방의 사회주의적 성격 부정- 좌를 겨냥한 비판

-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시진핑 총서기 선출)

---도로(길), 이론,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 중국이 주장을 내세우겠다는 의미

< 좌에 대한 비판의 강조는 정세적 측면에 대응하는 것

- 2012년 3월 보시라이(薄熙來)의 충칭(重慶) 사건

= 이로 인해 우로 방향을 튼 것은 아니고 좌우 균형을 잡되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 당이 주도한다는 의미로 봐야

사상논쟁이 중요해진 배경

-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 컨센서스- 좌左의 비판(중국공산당인데 좌가 사회주의 방향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2000년대 이래 증가함)
- 우右의 비판 역시 증가
- 좌 비판의 사례- 충칭모델- 보시라이가 충칭시 공산당 서기로 취임 후 국유기업 중심의 개발, 개발이익을 활용한 민생 관련 사업의 강화, 범죄 적극 소탕, 전통 사회주의 문화의 복원(혁명가 요제창) 등 새로운 정책- 좌파 사이에 선전됨
- 충칭모델은 개혁개방 컨센서스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됨
- 단순한 이론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토대를 지님

질적 경제구조로 전환시기 정치정당성 문제

-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주도성은 개혁개방이래 약화되어 옴
-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를 만족시켜 옴
- 시진핑 체제에는 고도의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
- 후진타오 시기 10% 경제성장은 어렵고 실제 이러한 고도성장의 문제(거품경제, 부동산, 환경)가 있어 질적 성장으로 방향전환 필요
- 성장을 떨어지는 시기의 문제 - 정치, 이데올로기로 대응해야
- 부패문제, 공산당의 적극 대응은 이러한 통치 정당성의 강화를 위한 다른 측면인 것

개혁개방 컨센서스의 약화

- 개혁개방 컨센서스란? 경제 발전중심론

1978년의 11기 3중전화-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을 경제로 이동
경제건설(하나의 중심)- 개혁개방(시장화, 경제 자유화)

4개 원칙- 사회주의길을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주
의 견지, 중국공산당 영도 견지, 인민민주독재 견지

이데올로기 합리화- 1987년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사회주의시기의 국가소유제+계획경제

개혁개방- 국가소유의 다원화(민영, 사영, 외자 기업)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칼 마르크스 예견과 달리 낙후 농업국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해서 초급단계가 필요하며 이 시기 생산력의 발전이 필요, 사회주의 시기 시장경제가 이러한 생산력 담보(1992)
- 사회주의민주- 중국공산당 영도가 핵심 주장
- 비판의 내용- 1)경제- 사회주의 맞는가?
2)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 민주는 독재나
전제 아닌가?

2012년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기치를 바꾸는 사특한 길을 가지 않는다"- 서구식 제도 수용치 않고 과거 사회주의로 가지도 않는다는 의미

공산당 방향에 대한 거센 도전-거시적 안정(중앙), 미시적 불안정(지방)

- 배경) 빈부격차의 심화- 지니계수는 남미와 거의 비슷
개혁개방의 결과로 보는 시각

<중국의 특징>

중국은 인구가 많다/ 14개 이상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여 교류활발, 종교와 문화 매우 다양(이슬람, 유교)/ 농민국가(농업비중 10%로 떨어졌으나 인구의 50%는 농민-도농격차 심화-소득3배)

1990년대 이후 군체성 사건(비합법적 집단행동) 증가-토지 수용시 보상 문제(1993년 8천건- 2010년 이후 10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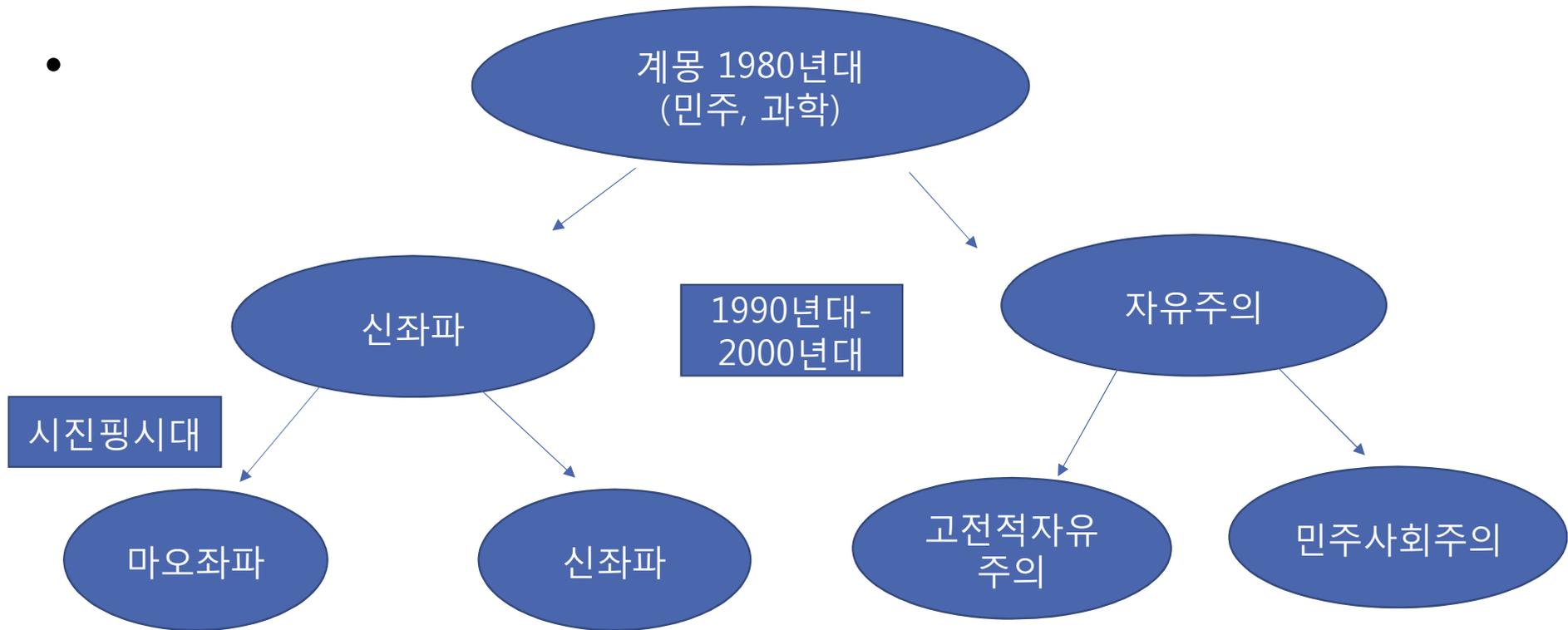
= 중국 사회경제 구조의 복잡화, 이익 분화, 갈등의 증가, 개혁동력의 약화

- 중국공산당은 미시적 사건과 거시적 정세를 나누고 통제하는 전술과 방식 지님
- 이데올로기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함
- = 허세사회(和諧사회)- 빈부격차 관심을 당이 갖는 다는 것을 표방한 뒤 '농업세 폐지' 등을 통해 농민의 불만을 다독임
- 지방의 미시적 문제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
- 횡적 네트워크 형성의 철저한 통제- 조직화 방해
-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 보다는 국지적 사건의 전국화의 경향이 생겨남

사상논쟁의 출현

- 1990년대 자유주의와 신좌파로 지식인 분화
- 비판적 지식인의 논쟁- 사회적 구조와 연관시키는 담론의 출현
---1980년대는 계몽의 기치하에 문혁에 대한 성찰을 함
문화대혁명은 5.4시기의 민주와 과학과 같은 정신이 아직 중국사회에 충분히 발현되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 하고 이를 강조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등장
1980년대 지식인의 분화- 중국의 미래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에 대한 강조와 권력집중이 문제이다(자유주의-하이에크)/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인 신자유주의에 끌려들어 간 것이 문제이다(신좌파)

중국 현대 사상분화(공산당,정치문제기준)



개혁관련 논쟁(2003-2006)

- 개혁성찰(反思改革)- 량셴핑(郎咸平)- 국유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국유자산이 유출된다(량셴핑 현상)
 - 양판(楊帆)- 경제개혁이 신자유주의로 가는 것과 지나친 효율주임을 비판
 - 순리핑(孫立平)- 사회공평 문제 제기
- 이에 대해 반대파(자유주의)개혁이 좀더 활발히 되어야 한다는 주장(2005가을-2006봄)
- ==공산당지도부 대응 2006년 6월 5일 인민일보- 개혁 개방의 지속적 추진과 심화/ 삼농문제(농민, 농업, 농촌- 원테쥘)은 대응
- =후진타오시기 10년-적극적 시장화 정책도, 분배도 없었음

시진핑 시대의 사상논쟁; 사상분화의 가속화- 신좌파와 마오좌파, 사회민주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

- 시진핑 시대 사상논쟁- 더 분화, 격화
- 2000년대 2차 분화- 신좌파와 자유주의 내의 분화
- 좌파---마오좌파(신좌파보다 더 급진) 영향력의 증가- 마오 문혁
노선 계승을 주장
 - 개혁개방 부정, 문혁의 중단 없는 지속적 계급투쟁 주장
 - 빈부격차의 심화가 그 주장의 토대
 - 중국공산당-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이다
- 신좌파- 문혁의 유산 일부 계승 주장

우파-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 중국의 1920-30년대는 자유주의 사상 중 부의 분배 공평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자유주의가 수용
- 1990년대 중국의 자유주의는 하이에크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개인의 재산권, 개인의 자유에 중점)
- 사회민주주의- <염황춘추 炎黃春秋>- 중국공산당내 원로 개혁파 만든 잡지(2007년 2월 호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민주헌정론,공산당 권력견제)
- * 서구는 사회민주주의를 좌파에 넣지만 중국에서는 우파가 보다 적절= 중국의 좌우 구분은 주로 정치민주와 공산당이 중점

이데올로기의 극단화

- 사상논쟁은 실제 다양한 사회세력과 정치세력과 연동, 상호작용
- 단순한 지식인 사회내부논쟁에서 나아가 사회적 파장
- *2008년의 08헌장(정치개혁)- 류샤오보(劉曉波) 체포(11년형), 2010년 노벨평화상
- * 충칭모델- 보시라이체포(2012)
- 당장의 변화는 아니어도 사상내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사상논쟁의 논쟁점(네가지 사상)

1. 역사문제 2. 정치민주 3. 경제개혁 방향

1. 역사문제

중국공산당 공식 입장

1949-1956년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

1957년 이후 잘못된 경향이 다소 출현했다고 봄

1966년 문화대혁명은 재난이었다고 완전 부정

1978년 이후개혁개방은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

좌우 모두의 불만(문혁)

• 좌-마오좌파 문혁은 마오 사상의 정수/개혁개방 비판

개혁개방은 사회주의길이 아닌 변질된 길

신좌파- 문혁의 대중적 참여의 요소들 되살려야 한다

, 문혁의 전면 부정은 아니다

우- 고전적 자유주의

공산당이 독재라는 전제를 보이는 것이 문혁

문혁 매우 비판하고

논의자체를 못하게 하는 공산당에 대해 더 비판하고 들춰야 한다고 비판

이전의 공산당 역사 연안 정풍운동은 정치적 숙청 등이 일어난 문혁의 원형이라

고 비판, 공산당의 역사 부정(앞의 역사허무주의는 이러한

과도한 비판을 지적하는 것)

민주사회주의론(사회민주주의)- 중간적 입장- 신중국 혁명은 긍정,

1953년 사회주의 개조에서 신민주주의를 건너 뛴 것을 비판- 현재 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임(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결합, 정치적으로는 비공산당계열도 참여 의미)

2. 정치민주

- 좌파- 공산당 영도 원칙 비교적 수용
- 우파-기본적으로 서구적 개혁 주장
공산당 영도는 중국 정치발전 가로 막음

<08헌장>

- 헌법 개정(개인권리 보장, 헌정실시 요구)
- 분권 통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입법기관의 직접 선거
사법 독립, 군대의 국가화(인민해방군이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점 반대)
- 티벳, 타이완을 포함한 연방공화국 제안
- 민주사회주의쪽에서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거나 중국사회에 맞지 않을 수 있어 당내 개혁파와의 연대 등을 모색하려 함

- 좌파- 인민 민주, 대중민주 주장

현재 서구 대의제는 대표자만 뽑지 진정한 민주가 아니라고 비판

참여에 기초한 인민민주, 대중민주를 강조
그러나 이것이 가능?

문혁시기의 참여가 인민민주라고 하지만

당시 사건에서 트라우마가 존재, 신좌파도 대안 제시 어려움,

협약 민주, 심의 민주를 주장- 다당제가 아닌 협의를 더 중시하므로
실제 현 정치체제를 그냥 옹호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됨

경제 개혁의 방향(소유제)

-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강화
-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소유제 개혁 영역의 변화가 많았으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무엇인지, 소유제의 문제가 제기됨

<공산당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소유제 특징>

- 1)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키면서도 공유제를 주체로 한다(공유제 경제라 할 수 있나)
- 2)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한다(빈부격차는 자산가치, 시장효율 등이 초래한다)
- 3)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거시조정 한다(이건 자본주의국가도 하는 것)

소유제- 사회주의인가?

- **국영기업문제**- 최근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심화- 100여개 남은 중앙기업(중앙정부 소속의 국유기업은 여전히 전략적 독과점)이를 개혁파는 중국경제 발전 가로막는다고 비판,

그런데 공유제인 이 중앙기업을 없애면 뭐가 사회주의인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될 것, 다시 최근 이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음

- **토지소유의 문제**- 신도시화를 진행해 가며 토지소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농민들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지님

소유권은 지방정부가 지님, 개발시 농민은 적절한 보상 받지 못함, 농민권리 차원에서 사유권을 인정해야 하고 사유화가 되어야 경작권에 묶이지 않고 도시로 유인될 수 있다고 주장되나 이것 역시 이데올로기 문제가 되고 있음.

시진핑 체제의 좌우 구도의 미래

- 좌우 구도의 전개 가정

1) 좌파연합의 강화- 신좌파와 마오좌파의 연합으로 가는 것
마오좌파의 문혁 주장 지지 받기 어려움, 주변적 세력일 뿐

*** 신좌파와 공산당의 결합- 좌파이데올로기의 강화나 이데올로기의 재구성 등이 일어나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

이러한 이데올로기 재구성과정에서 성장과 효율 위주의 발전노선이 비판된다면 새로운 발전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

2) 우파연합이 우위에 섬- 정치개혁요구가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 친서방주의적 경향은 대중의 지지 받지 못하므로 / 공산당의 개혁파와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연대 강화가 나타날 듯

- 옹황춘추(당내개혁파, 사회민주주의경향) 고문을 리커창의 정책 자문팀에서 방문했다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주장도 반영될 여지가 있고 특히 중산층의 향방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3) 좌우연합- 신좌파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의 담론적 연합이나 교류, 지식교류 공간에서 사회주의현대화라는 가치가 논의될 여지가 있음, 이들간 갈등이 첨예하나 현실에 근거하는 고민을 각자 하고 있어서 접점의 여지가 있음

예) 대중을 어떻게 정치질서에 참여를 증대시킬 것인가.

시장화가 초래하는 폐단을 막을 것인가.

공산당의 고민

- 정치적 사회주의, 경제적 개혁간의 괴리, 조정의 어려움

반부패 운동만으로는 부족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과 이를 논의할 건강한 공간의 창출이 필요

공민사회(시민사회)- 미국과 서구가 중동등의 색깔혁명을 조장했다고 보는 경향이 중국에 있음 이에 따라 부정하고 통제

이는 긍정적 발전의 기회 상실일 수도 있음

***중국이 고민하는 가치, 이것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경제적 교류 못지 않게 의미 있는 부분임

- 2017년 3월 17일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
- 2017년 10월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 사상' 생전에 당헌에 넣음
- 2018년 3월 11일 '시진핑 사상'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헌법 서문에 포함
-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을 삭제한 5차 개헌안이 통과= **시진핑 장기집권의 토대가 마련**

'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동안 급격한 경제 발

전의 이면에 누적되어 온 빈부·도농 격차, 심각한 부패와 민심 이반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배경

일당통치 강화

빈부격차 등을 축소할 균형적 성장과 경제에서의 국가 역할 강화

사상 통제(이데올로기: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

주요 내용은 4가지 전면전략: 샤오캉 사회(小康)확립,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5위 1체: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추진

참고문헌

한국고등교육재단, 『중국, 새로운 패러다임』, 한울 아카데미, 2015.